

시 한편 생각 한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1917-1945) 서시에서

시인 윤동주는 일제 치하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조선독립과 민족문화 수호운동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옥중에서 아수와 같은 일본 군부의 생체실험에 희생당해 해방되던 그 해 2월에 순국했다. 그는 대학시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려고 했으나 조금이라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예술작품은 용납되지 않던 시대라 출판이 못하고 해방 후 그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유고시집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고, 서시는 그 시집에 첫 번째 실린 시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시인의 양심

우리는 흔히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고 말한다. 시인은 양심이요 이 땅 백성의 민심이요 곧 하늘의 뜻인 천심(天心)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으리라. 시인은 나무 일사귀 하나를 괴롭히는 바람에도 괴로울 정도로 그의 생명에 대한 사랑은 강렬하였고 그의 양심은 뜨거웠다. '별'은 꺼지지 않는 희망, 무너지지 않는 양심, 모든 생명불이를 내 품처럼 여기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라. 온 인류가 온전히 양심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낙원을 꿈꾸며 양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겠다고 시인은 노래한다.
그 당시 핍박받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이 너무나 험난함에도 시인은 굳은 의지로써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결의한다.
현대의 각박한 사회에서도 우리 주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한 선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자녀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대부(代父)역할을

충실히 하는가 하면, 한 여청은 한 주 내내 바쁜 식당일로 심신이 피로할 텐데에도 일요일이면 자선단체를 통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때를 밀어드린다. 어떤 주부는 해외 기아 아동 구호 단체에 별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며 바쁜 아침을 보낸다. 이를 모두 희생정신이 강하여 보인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승리제단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희생적으로 영생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애써야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시인이 생존하던 당시 일본군부의 매서운 제국주의의 '바람'은 시인이 꿈꾸는 세상을 위협하는 커다란 벽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모든 권력 집단은 자기네들의 밥그릇이나 명예의 탐에 금이 가게 하는 발언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민초들은 몰라도 침묵이요, 알라도 침묵을 보이지 않게 강요당한다.

승리제단을 매도하는 무리 많지만 바람은 별에 스치듯 뿐

우리 승리제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세주 조희성님은 예수의 잘못된 구원론을 비판하여 그가 구세주가 아님을 단상에서 늘 설교하셨다. 이에 기독교 권력자들은 정치권력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승리제단을 무너뜨리려 했다. 또한 이들은 매스컴을 이용하여 승리제단을 극도의 사이비 종교단체로 도배질하고 조희성님에게는 악독한 교주라는 범거지를 씌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지만 어찌 별이 바람에 스치울 수 있으랴! 바람은 대지 위를 땀뿌 뿌, 별은 창공에 떠 있는 것을. 시대를 달리함에도 이 시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준다.*

나준경 / 대부제단 책임승사

웃으면서 전도합시다



정도령님과의 첫 만남

두번째 회

죄 타는 냄새와 향취가 진동하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는 동안 김 소위를 눈여겨보니 틈만 나면 늘 녹음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무엇인가를 듣고 있었다. 그는 명문 S대 언어학과를 나오고 5개 국어를 하는 그였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무얼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나 싶어 물어보니 정도령님의 말씀과 찬송가, 기도가 녹음된 것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미 정도령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책도 읽어보았기에 그렇다면 정도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여 한 번 들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어폰을 빌려 귀에 꽂아보았다.

정도령의 사자후에 압도되다

그 순간 천둥번개 소리와 같은 사자후(獅子吼)의 음성으로 찬송하는 소리가 뇌리를 때렸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높고 강한 톤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찬송하는 음성은 말 그대로 신의 음성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한 집중도 설복시키는 부처님의 사자후(獅子吼)였다. 그때 들었던 찬송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군을 부르네. 곧 금일에 일 가려고 누구나 대답을 할까. 일하라 가세 일하라, 삼천리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라가세." 빠른 속도로 단상을 두드리는 소리와 빠른 박자에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어우러져 들려오는 찬송가는 충분히 나를 사로잡을 수 있었고, 진실로 하나님의 일군을 찾는 애절한 심정으로 찬송하는 음성을 듣고 마음속으로 과연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언젠가 휴가를 얻어 직접 한번 만나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 후 부대훈련과 교육을 하는 가운데 9개월이 지난 1987년 6월 초에 마침내 기회가 왔다. 내가 지휘하는 화력지원 부대가 전체 정기 휴가를 가게 되었다. 15일간의 휴가지만 그 절반은 전역자 교육을 맡게 되어 일주일의 휴가만 남았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가족에게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속이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다는 승리제단을 찾아가고, 그 날은 아마도 토요일 오후인 것으로 기억된다. 역곡은 낯선 곳이지만 과거 부평에서 몇 년을 근무한 적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시골 같은 조그만 역사며 주변의 건물들



김로 이승성신을 받으면 죄 타는 냄새가 먼저 진동한다(우측 흰부분이 이승성신이다)

도 작고 낮은 건물들이 많았다. 허름한 건물의 2층 승리제단 사무실을 찾아 김 소위의 소개를 받고 정도령님을 만나 배려 있다고 인사하니 모두들 상당히 반가워하며 기쁘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정도령님을 만날 수 없고 내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으니 조금 일찍이 나오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영생의 진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청년 대학생 한명이 자기는 공주 사범대학교 중문학과를 다니며 열차 안에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승리제단 승사로부터 전도를 받고는 입문하였다고 하며 고서로부터 자기가 경험한 은혜체험에 대한 것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친하게 되었다. 그는 다니던 학교도 관심이 없다며 휴학계를 내고 몇 년째 여기서 숙식을 하며 영생의 도를 공부하고 있다며 21일 수행에 대하여 안내해 주었다. 나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하며 21일 교육이 어렵겠다고 하자 그것은 정도령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날 밤늦도록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하 예배실에서 임시 숙박하기로 했다. 먼저 온 몇 명의 새 식구도 있었다. 서로 인사하며 짧은 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말 모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초여름이라 지하 예배실은 춥지도 않고 숙박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고향의 뒷산 계곡 같기도 한 곳에 시냇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 돼지우리과 같은 움막이 하나 있었다. 갑자기 상류로부터 물

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 그 집이 떠내려 가버렸다. 마음속으로 "아니 내 집이 다 떠내려가네."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아마도 나의 더러운 속세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로이슬 생명수로 씻어 주었나 보다 하는 좋은 느낌도 있었다. 이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또 여러 승사님과 청년들과 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도 그들이 하는 식사를 같이 했다. 식사는 1식 3찬의 간결한 음식이었지만 오히려 수도승의 식사처럼 신성하게 느껴졌다.

정도령과의 첫 만남

일요일 오후 3시가 다 된 시간에 정도령님이 지방에 다녀오시느라 좀 늦으셨다며 2층 총무과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대기하며, 출입구 쪽에 나를 세우고 인사하기 좋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과연 나같은 사람도 위대한 분을 만나 참 진리의 도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렘었다. 잠시 후 키는 키 보이지 않으나 보기에 금빛 얼굴 모습에 당당한 풍채(風采)의 신사 한 분이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여 들어왔다. 모두 신선처럼 느껴졌다. 옆에 있던 청년 대학생이 김 소위의 직속 상관이 휴가를 내어 진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왔으며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소개하고 인사를 시켰다. 머리 숙여 인사하니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악수를 하는데 힘을 주어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알아보세요."하고 격려해 주셨다.

지하 예배실로 안내받아 첫날 예배에 참석했다. 초여름 오후의 더운 열기와 좁은 공간에 남녀가 양쪽으로 나뉘어 무릎 꿇고 앉아 힘차게 손뿌 치며 찬송하는 소리와 열기가 땀에 후끈 달아올라 금방 이마에 땀이 났다. 이틀간은 정도령님의 말씀에 새 식구들을 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오시는 분은 "호박이 넘플케 굴렀다"며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어서 지금까지 나의 민족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예배 말씀 중에 "왜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이나?" 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정체성을 철 통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며 영생의 원리를 말씀하셨다. 과거 김 소위로부터 들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한 나무의 한 가지요, 한 몸이니 황백흑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 비로소 피부에 와 닿았다.

그렇게 마음으로 긍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 주변에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는 듯했다. 제단 밖의 어디선가 종이를 태우듯 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도 계속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 그제서야 이야기 들었던 바와 같이 이것이 내 죄를 태우는 냄새인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한두 번 더 진한 향기가 스쳐 가기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남성들 틈에서 향수를 바르고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설교 단상의 어느 곳인가 향수가 있어서 선풍기 바람에 날아오나라 생각했다.*

서복목 승사 / (주) 해동대표

공고

이영자 총재 초청 예배 일정

- ① 영도승리제단 3.15. 오후 2시(책임승사 손천식)
② 진해승리제단 4.12. 오후 2시(책임승사 이창선)

예배에 참석하시어 감로이슬성신 듬뿍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며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양심 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부활함을 입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을 최초로 도통한 분이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마귀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죄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사망의 요소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선악과다

조희성 이긴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이것이 도통이다